## 작은나무

로렌 롱 글·그림 | 안지원 옮김



작은 나무는 파릇파릇 잎을 틔우고, 울긋불긋 곱게 물들고, 하나둘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는 사이 한 뼘 한 뼘 자라납니다. 이제 나무들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혼자만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 나무의 사계절

이야기 속 나무의 사계절을 떠올려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아맞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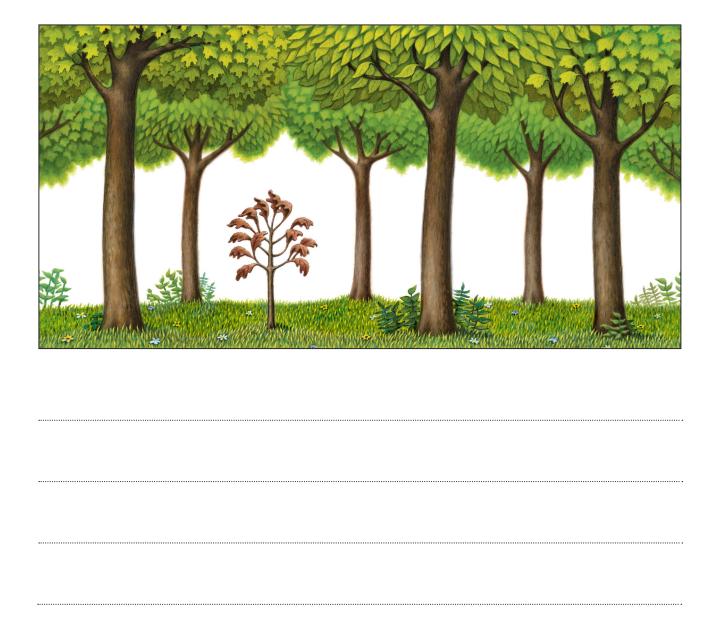




## 겨울이 왔어요. 혼자만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작은 나무를 보고 다람쥐와 사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새 훌쩍 자란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작은 나무가 혼자 서 있어요. 더 이상 해도 보이지 않고 다람쥐들도 놀러 오지 않고 산비둘기 노랫소리는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아요. 작은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우가 혼자만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못한 작은 나무를 응원하고 있어요. '나'라면 겁을 먹고 망설이는 작은 나무에게 어떤 말을 해 줄까요?



나무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사계절)은 우리가 자라는 모습과 닮았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 기억에 남는 성장 과정을 그려 보세요.						

## 미래 상상하기

작은 나무가 용기를 내어 하나둘 잎을 떨어뜨렸어요. 작은 나무는 앞으로 어떤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